

간화선 답 없어 답답

‘현대 명상문화와 한국 선(禪)의 과제’ 불교종흥대토론회

간화선이 수행 중심 풍토에서 벗어나 현대 사회 병폐 극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대중화·세계화의 길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은 9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불교종흥을 위한 대토론회- 현대 명상문화와 한국 선(禪)의 과제’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간화선 수행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진단을 쏟아냈다.

대중화하려면 사회대안을 시대정신 결여한 채 안주 지도법, 연구자 양성해야

스님은 “오늘날 선원에서는 간화선을 한다고 하면서 오직 편안한 가운데 태평선만 추구하고 있다”며 “선은 고매한 인격과 수행을 바탕으로 사회와 역사를 계도하고 중생을 향해 깨달음의 메시지를 띄우고, 시대정신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현재 간화선 수행자가 철저한 간화선 정신에 토대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깨달음에 목적을 둔 수행자들이 마치 사상적 전제가 필요 없이 화두참구만 잘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적정과 무사안일에 침잠한다는 것이다. 스님은 또 한국 선불교가 이론과 실천이 양극화 되면서 선원의 수선남자들은 선사상에 무지하고, 선학자들은 실수(實修)를 등한시한다고 지적했다.

월암 스님은 “이론과 실천을 바탕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중에게 간화의 선식(禪食)으로 삶을 풍요롭게 해야 한다. 물질문명의 대안으로 선 문화를 고양시켜야 세계일화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스님은 선 문화의 세계화·대중화를 위해 선 종지에 입각한 종교 교육, 간화선 전문인력 양성기구 설립, 선원의 특성화, 안거기간과 방식 및 내용의 차별화, 선지식의 역할 제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다른 토론자 이재열 유마선원장도 간화선 발전을 위해서는 해소돼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특히 간화선이 최상승법이라는 의견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이재열 원장은 “간화선이 최상승법이라는 주장이 과연 객관적인지 의문이다. 선사들이 주장했기 때문인지 스님들이 체험을 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훌륭한 수행법이라는 점에는 공감하나 수행법이 어렵고, 간화선 수행자 중 과연 몇 명이나 여래의 지위를 증득하는 경지에 도달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 원장은 오늘날 간화선 수행자에게 인가를 내릴 만한 선지식이 존재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1700공안 모두를 타파할 수 있는 화두 수행자가 몇이나 되겠는가. 극소수만이 가능하다면 간화선의 대중화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태완 무심선원장은 조계종 종현에 제시된 종지는 조사선인데, 조계종에서 가르치는 것은 간화선이라며 조계종이 선의 토양을 협소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발제자로 나선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은 간화선 대중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수불 스님은 명상 인구가 늘어나면 결국 최상승법인 간화선을 찾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불 스님은 “선의 입장에서 스마트폰 등 기술의 발달도 반가운 일이다. 그만큼 상의 세계에 머무르는 정신문화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선은 상의 있음과 없음의 넘어섰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간화선 수행법을 제시하면 대중화와 세계화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수불 스님은 “현실문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일선 속에서 간화선 수행과 생활의 일치와 조화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다르지만 같은 이들의 만남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해 프랑스를 방문한 조계종 대표단이 9월 29일 법기독교 수행단체인 떼제공동체를 방문했다. 떼제공동체 알 로이스 원장 수사(맨 앞줄 오른쪽)는 “너무 상이한 전통에서 살아온 우리지만 어떤 면에서는 너무 가깝게 느껴진다”고 대표단을 환대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수사들의 밝은 표정에서 편안함을 느낀다”면서 “독신수행자라는 동질감, 발우공양 같은 떼제의 정결한 식문화가 서로 길을 열어주는 것 같다”고 화답했다. 한편, 떼제공동체는 1940년 로제 수사가 설립한 이래 매년 전세계에서 10만명 이상의 청·장년들이 찾고 있는 수행공동체이다. (차주상보) 파리=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조계종 원로 도천·정무 스님 입적

조계종 원로 노스님들이 연이어 입적했다. 화계사 조실 도천 스님이 9월 28일 오후 1시 10분 주석처인 금산 태고사에서 원적에 들었다. 법랍 83년, 세수 101세. 영결식과 다비식은 10월 2일 구례 화원사에서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됐다. 29일 오전 8시 40분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정무 스님이 안성 석남사에서 원적에 들었다. 법랍 55년, 세수 81세. 영결식은 10월 9일 오전

10시 수원 용주사에서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됐으며 다비식도 같은 날 안성 석남사에서 가행됐다.



도천 스님 정무 스님 관련 기사 6면 노덕현 기자 nodu@naver.com

동국대, 대학평가 전국 14위

동국대가 전국 대학평가에서 14위를 차지했다. 동국대(총장 김희욱)는 9월 26일 중앙일보가 발표한 2011 대학평가에서 총점 350점 만점에 196점으로 전국 14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17위보다 3계단 상승한 결과이다. 동국대는 순위가 상승한 이유로

지난해에도 강세를 보였던 국제화 부문의 추가적인 점수 상승과, 그동안 미진했던 교수연구부문 점수의 개선으로 꼽았다.

경주캠퍼스(총장 김영종)는 2011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국제화부문 전국 13위, 취업률 전국 16위를 차지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초 고층 COEX 건립 결사 반대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상임대표 퇴후)가 봉은사 앞에 추진 중인 초고층 건물 건립 계획의 취소를 촉구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9월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안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는 상황에서 봉은사 앞을 고집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무역협회는 최근 강남구 봉은사 앞에 높이 184m, 39층 규모의 한국종합무역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봉은사와 불자들은 이에 반발하며 전통문화 및 수행환경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저급한 문화적 안목에 답답할 뿐이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도심의 아름다운 사찰을 고층건물의 그림자에 가두는 것은 역사와 문화를 가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와 무역협회는 초고층건물 건립계획을 당장 취소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박기범 기자

BBS불교방송 사장에 이채원 씨

4년간 공석이었던 BBS불교방송 새 사장에 이채원 전 강릉MBC 사장이 선출됐다.

BBS불교방송이사회는 9월 26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76회 이사회를 열고 총20명 중 18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대한불교진흥원이 추천한 이채원 사장을 신임 사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26일부터 4년 간이다. 이채원 사장은 “회사 정상화와 미래경영을 위해 노력하겠다. 먼저 직원 개별 면담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사장에는 현 이사장 영담 스님이 만장일치로 연임됐다.

노덕현 기자 nodu@naver.com

종교평화선언, 종단 내실부터

불교사회정책연구 법승 스님 불교발전 5대 과제 제시해

화쟁위원회 ‘종교평화선언’ 초안 발표 후 시종일관 수정을 촉구해 온 불교사회정책연구소 법승 스님이 이번에는 중징예하와 원로 대종사, 본사 주지 스님들에게 청원서를 보냈다.

법승 스님은 종단의 원로 대덕과 주지 스님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내실 있는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9월 28일 밝혔다.

스님은 청원서에서 “총무원이 교단 내부의 병폐를 스스로 진단해서 고치려는 노력을 할 때 한국불교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권력은 계파가 장악하고 자성과 쇄신의 활발한 현상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불교가 부처님을 신격화하고 세속적인 복이나 구원하는 종교로 전락하고, 타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고 선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화쟁위의 종교평화선언을 비판했다.

법승 스님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종단의 혁신, 종지 회복, 총무원장 직선제, 계파 타파, 정법의 파사현정의 5가지가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범 기자

856호 CONTENTS

승려노후수행마을 1차 낙성	2
특집 · 파리 한국불교문화체험	3
인터뷰	4
법타 스님(정각원 원장) 의륜 스님(일봉문도회 회장) 선암 스님(강화사암연합회 회장)	
정무·도천 스님 입적	6
2011 빛고을 아카데미	11
청춘토크파티	23

능인향당
능인향당의 침향전문점
침향갤러리
침향복합물 · 침향염주 · 침향선향
갤러리 02-738-6777 (조계사 맞은편)
본사 02-3663-6777 www.nihwa.com

신상품 LED인등·전구
천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조계종 화쟁위원회 종교평화선언과 관련, 불교도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 제1신 -

이 광고는 본사의 입성과는 관계가 없으며 광고주 개인의 의견만을 밝힙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부대중과 대한민국 불교도 여러분! 지난 8월 23일 조계종 화쟁위원회(이하 화쟁위)가 발표한 종교평화선언 초안(이하 동 선언)과 관련, 위원장 도법 수좌 등이 주도한 94년 佛法沙汰와 반불교적 제도개혁 그리고 4대강사업 토론에서 언급한 ‘힐과 작심’ 등 도법 수좌의 언행에 비추어 동 선언은 조계종과 한국불교계에 대해 앙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노답의 소견을 다음과 같이 밝히기로 하였습니다.

1. 동 선언의 종교평화 : 최근 세계평화를 위한 5대 종교 간의 대화에서 발표된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의 발표와 토론 그리고 미발표 원고 기독교의 평화관 등 그간 종교계의 평화관련 논문을 통해서 보는 한 종교마다 평화관이 다르고, 지난해 불교의 평화관에 관한 토론에서도 불교의 평화관도 발표자와 토론자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종교평화에 대한 각 종교의 입장은 물론 불교계 내부의 합의도 이루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까지 아우르는 동 선언을 종단대표부의 동의도 없이 발표하고, 또 10월까지 완성하여 총무원장이 발표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종단에 대한 투쟁 선언이자 총무원장에 대한 압박입니다.

2. 동 선언의 이론적 근거 : 동 선언의 이론적 근거인 연기설을 모든 종교의 공존공영의 기본방향으로 하고, 종교간 평화와 중생의 안락과 행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종교간 평화 등에 대한 가르침과 그 경위가 어딘가를 밝히고 있

지 않습니다. 이는 도법 수좌의 생명평화운동의 이론적 근거인 연기설이 연기일반의 논리적 관계에 국한되고, 가치적 연기에 대해 일체 언급이 없는 것과 궤를 같이 합니다. 불교에서 연기를 실시하는 목적은 가치적 연기 즉, 환멸연기의 열반적정을 밝히는 데 있지, 다만 진리로서 현상의 움직임을 연기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도법 수좌의 연기설에 입각한 동 선언의 종교 간 평화 등은 불교와는 무관한 도법 수좌만의 종교 간 평화 등으로 보아야 합니다.

3. 동 선언의 불실 인용 : 먼저 동 선언은 부처님께서 올바른 가르침을 펴내는 기준의 하나로 ‘사람이 아닌 법’에 의지하라고 했다는 ‘사람이 아닌 법,은 네 가지 의지할 법 가운데 하나인 법에 의지하고 설법자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지, 불교의 올바른 가르침을 펴내는 기준이 아닙니다. 다음 위원장 도법 수좌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2011. 9. 1)에서 ‘부처님은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다고 말하면 나도 그렇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나도 그렇다고 하셨다’는 말씀은, 세존은 法語者로서 여법히 말하면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법(法, dhamma)이 진리와 동일시 될 수 있을 것인가도 문제지만, 참여와 투쟁을 일삼는 도법 수좌가 세존의 무쟁(無諍)의 가르침을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는 자기주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내세운 것은 부처님에 대한 불경이자 매불(賣佛)로 비판되어 마땅합니다.

4. 동 선언과 관련한 문제제기 (1) : 화쟁위 위원장 도법 수좌는 상동 인터뷰에서 비

구·비구니 간 차별과 관련, “비구는 부처님의 이치를 모르고 무지와 착각에 빠졌으니 불행하고, 비구니는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가졌으니 불행한 거다”고 단정했습니다. 이것은 조계종의 비구들에 대한 모독이자 종단을 매도한 것이며, 비구·비구니 간 갈등과 대립의 선동으로 비판되어 마땅합니다. 또한 “조계종 종현·종법에는 사부대중(四部大衆)공동체라고 명시되어 있다. 사찰운영에 재가자(在家者)가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의 사부대중 공동체란 주장은 승가와 사부중의 원어와 그 근거로 보아 잘못된 것이며, 역시 출가 중에 대한 불신과 함께 재가 중 선동으로 보아야 합니다.

5. 동 선언과 관련한 문제제기 (2) : 승단의 생명은 화합이고, 승려의 분한(分限)은 곧 승려의 생명입니다. 94년 도법 수좌 등이 종단 화합법(종현 제9조 ①항 구주제·승단법 제10~제11)과 분쟁 해결의 기본법(종현 제9조 ①항 구주제·침멸쟁법)에 관한 침멸쟁법(사승려대회를 통해 종단 화합을 파괴하고, 종단 최상위 징계규범이기도 한 침멸쟁법에 관한 결석심판으로 승려들의 생명(분한)을 박탈하였습니다. 한국불교사와 조계종 단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반평화적 종단장악이며 반생명적인 승권박탈입니다. 지난 17년 간 중징예하의 교시와 원로회의 유시 및 본사 주지들의 결의에도 주변승려들과 함께 화합을 위한 사면 반대를 주도한 자가 바로 도법 수좌입니다. 동 선언은 종단승명과 승려생명보다는 갯·벌의 지렁이와 도롱뇽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도법 수좌의 생명평화보다 종교평화의 깃발을 하나 더 올렸을 뿐입니다.